

더글러스 맥아더 재평가 : 미국의 세기와 맥아더

金 南 均
(평택대 미국학과 부교수)

1. 머 리 말
2. 맥아더의 등장
3. 제2차 세계대전과 맥아더
4. 일본 점령통치와 맥아더
5. 한국전쟁과 맥아더
6. 맺 음 말

1. 머 리 말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1951년 4월 퇴임 직후 미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갈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¹⁾ 그의 말과 같이 당시 사람들은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그가 현실 정치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40년

도 더 된 지금, 자신의 표현과는 달리 그 노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주변을 감돌고 있다. 특히 최근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논쟁은 그를 공권력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죽은 노병의 동상을 24시간 경찰 카메라가 지키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다. 노병은 죽어서도 공권력의 보호대상이 되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²⁾

우리의 심각한 논쟁 대상이 된 맥아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에 대한 평가는 실로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맥아더의 부관이었던 케니(George C. Kenny) 장군은 맥아더를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자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장군”이라 단정했다. 또한 맥아더에 대하여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의 하나인 『미국의 시저(American Caesar)』의 저자인 맨체스터(William Manchester)는 맥아더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이 나라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천재 군인(the most gifted man-at-arms)”으로 평가했다.³⁾ 그러나 맥아더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하였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맥아더를 ‘위험한 인물’이라 생각했으며, 맥아더를 해임하였던 해리 트루먼은 물론이고 필리핀에서 맥아더의 부관이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도 맥아더에 대한 혹평을 감추지 않았었다. 아이젠하워나 트루먼은 맥아더가 사망하였을 때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 역사학자 샬러(Michael Schaller)에 의하면 맥아더는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이자 자아도취적 소아병 환자였다. 튀는 옷차림과 행동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타고난 화술과 철저한 언론 홍보를 통하여 대중적 인기를 샀다. 흔히 높이 평가되는 맥아더의 군사

1)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 Hill Book, 1964), pp. 400-405.

2) 중앙일보, 2006년 2월 28일.

3) George Kenny, *The MacArthur I Know*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51), p. 9; William Manchester, *American Caesar: Douglas MacArthur, 1880-1964* (Boston: Little Brown, 1970), p. 3.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에서는 맥아더에 관한 책이 수십 종 이상 팔리고 있다.

적 업적도 객관적으로 평범하거나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고 살리는 평가한다.⁴⁾ 한편 1953년 집권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닉슨(Richard Nixon)은 맥아더를 “미국의 거인이었으며, 상충적인 것과 모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신화적 존재”로서 “사려 깊은 지성인, 자아 중심적인 군인이었고, 권위적이면서 민주주의 신봉자이며 타고난 연설가”였다고 평가했다.⁵⁾

이와 같이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는 맥아더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후세의 역사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맥아더가 직접 군사 활동을 전개한 역사적 현장이었고 그 전쟁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맥아더를 평가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맥아더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아마도 통일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맥아더를 덮어 놓은 채 20세기 세계사나 혹은 한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맥아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시각에서 오는 평가의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사적 시각이 아니라 거시적인 세계사적 차원에서 맥아더를 평가해 봄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세계사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바뀐 점과 그런 미국의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맥아더가 담당하였던 역사적 역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맥아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시기는 세계사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한 소위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였다.⁶⁾ 이런 미국의 세기를 형

4) Michael Schaller,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살러의 이 저서에 대한 평가는 다음 자료 참조: 김남균, “다시 보는 맥아더: 각색된 영웅,”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편, 『해외한국학평론』 2(일조각, 2001), pp. 201-222.

5) Richard M. Nixon, “Douglas MacArthur and Shigeru Yoshida,” in *Leaders* (New York: Warner Books, 1982), p. 82.

성하는데 맥아더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인가? 본 논문은 맥아더의 출생과 성장시기부터 전쟁영웅으로 등장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점령군 사령관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맥아더의 등장

맥아더는 1880년 아칸소에서 아더 2세(Arthur II)의 세 아들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아더 2세(Arthur II)는 군인이었으나 그의 조부 아더 1세(Arthur)는 1825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매사추세츠 치고피(Chicopee)로 이민 온 이민자였다. 모친과 미국으로 이민 올 때 10살이었던 아더 1세는 이미 부친과는 사별한 상태였다.⁷⁾ 조부인 아더 1세는 많은 고생을 견디며 마침내 1840년 변호사가 되었다. 그 후 그는 1870년부터 1877년까지 콜롬비아 특별구의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였다. 1896년 사망할 당시 조부 아더 1세는 미국 상류상회의 주요인사가 되어 있었다.⁸⁾

부친 아더 2세는 남북전쟁에도 참전하였으며 군인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는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 주둔 미군사령관을 역임했다. 필리핀 주둔군

6)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관계로 전쟁의 파괴 속에 묻힌 유럽의 강대국들과는 전혀 달랐다. 미국은 전 세계 제조 상품의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총 재화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전 세계 총 금 보유량이 330억 달러 중 200억 달러가 미국에 있었다. 또한 군사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2백 5십만 명의 군인과 1,200척의 대규모 군함과 2,000대 이상의 중포격기 그리고 1,000대 이상의 장거리 폭격기 B29를 보유한 초강국이였다.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1987), p. 358

7) MacArthur, *Reminiscences*, p. 4.

8) D. Clayton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Vol. 1: 1880-1941 (Boston: Houghton Mifflin, 1970), pp. 7-10.

사령관 시절 필리핀 총독이었던 태프트(William H. Taft)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본국으로 전출되었다. 그는 육군참모총장으로 승진되기를 기대했으나 1908년 태프트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참모총장의 꿈을 접고 전역했다. 1912년 아더 2세는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아들 더글러스의 출세를 지켜보지 못했다.⁹⁾ 그러나 더글러스에 대한 부친의 영향력은 평생 남아 있었다.¹⁰⁾ 특히 군인이었던 아더 2세와 문관 총독이었던 태프트 사이의 갈등으로 맥아더는 군사문제에 대하여 민간인 정치인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후에 맥아더가 한국전쟁의 확대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인 트루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은 이런 부친의 경험에서 얻는 심리적 영향 때문이었다고 역사학자 샬러(Michael Schaller)는 설명하고 있다.¹¹⁾ 그러나 맥아더의 삶에 부친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모친 메리 맥아더(Mary Pinckney-애칭 Pinki)였다.¹²⁾ 그의 모친은 아들을 출세시키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평생 아들을 따라 다니며 온갖 문제에 개입하였다.¹³⁾ 그는 아들 맥아더의 승진을 위해서라면 남편의 옛 부하였던 사람들에게 청탁 편지를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¹⁴⁾

일찍이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맥아더는 텍사스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군사학교를 거친 후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였다.¹⁵⁾ 그는 평범한 소년이었으나 군사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899년 육사 입학 후 그의 성적은 매우 우수하여 육사

9) Ibid., pp. 41-43.

10) Ibid.

11) Schaller, *MacArthur*, p. viii.

12) James, *Years of MacArthur*, Vol. 1, p. 47.

13) 맥아더의 회고록에 따르면 모친이 둘째 아들(Malcolm)을 일찍 잃은 후 형(1876년에 때어난 형 Arthur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이었으나 1923년 갑자기 사망하였음)과 맥아더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 MacArthur, *Reminiscences*, pp. 14-17.

14) James, *MacArthur*, Vol. 1, p. 169.

15) MacArthur, *Reminiscences*, p. 17.

4년 기간 중 3년간 1등을 차지하였다. 1903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의 4년간 평균 점수는 98.14점이었다. 영어, 역사, 법학과목에서는 100점을 받았으나, 군사훈련과목과 미술과목 성적이 부진했다.¹⁶⁾

맥아더가 육사교육을 받고 있던 무렵 미국은 제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었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치루며 태평양의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했다. 스페인과의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미국은 필리핀과 괌을 비롯한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점수하였다. 하와이도 이때 합병하였다. 세계 시장 확장에 나선 미국은 중국의 독점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1900년 소위 문호개방정책을 선언하였다. 문호개방정책을 주창하던 당시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1위였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국가였으나 제조업 총 생산량은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었다. 1900년에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경제적으로 세계 1위에 도달하였다.¹⁷⁾ 1900년 맥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킨 후 장악하였으며, 쿠바를 보호령으로 하였고, 푸에토리코를 진압하였을 뿐 아니라 필리핀 지배도 더욱 강화하였다.

맥아더의 첫 근무지는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이었다. 1903년 10월 공병 장교로 마닐라에 도착한 맥아더는 필리핀 근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¹⁸⁾ 필리핀에 부임한 직후 그는 필리핀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16) 흔히 맥아더의 육사 성적이 육사 역대 졸업생 중 로버트 리가 1829년에 졸업하면서 획득 하였던 98.33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라고 하여 맥아더와 리를 최고의 졸업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육사 교과목이 변경 되었을 뿐 아니라 성적을 주는 방식도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맥아더가 육사에서 보여 주었던 점수는 육사 역사상 가장 우수한 졸업생 중 한명이라는 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적다. James, *Years of MacArthur*, Vol 1, pp. 77-78.

17) Schaller, *MacArthur*, p. viii.

18) 그러나 미국이 세계사의 주역이라고 하기는 아직 일렀다. 미국은 19세기까지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을 극도로 제한하여 오고 있었다. 건국 초부터 미국은 유럽문제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먼로 독트린을 표방하면서 미국

지역을 여행하였다. 그는 아시아적 분위기에 너무 매료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떤 ‘운명’같은 것을 느꼈다고 후에 회고록에서 서술하고 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나의 일생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 서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지역들이 제시하는 진정한 역사적 중요성과 운명적 느낌은 나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것들은 너무나 현란하고 또한 나의 일생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끼쳤다 …… 미국의 미래와 그 존재 자체가 아시아와 아시아의 섬들에 있는 기지들과 불가피하게 상호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수정처럼 밝게 보였다.¹⁹⁾

필리핀 근무를 마친 후 맥아더는 파나마운하 건설현장, 워싱턴 육군본부, 그리고 멕시코 반란군 게리라 소탕전에 참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맥아더는 42사단 소속으로 1917년 8월 프랑스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는 참전 직전 대령으로 진급하였으나 1년이 지나지 않은 1918년 6월 준장으로 다시 고속 승진했다.²⁰⁾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미국으로 복귀한 맥아더는 1919년 6월 육사 교장으로 취임하였다.²¹⁾ 육사 교장을 그만두는 1922년까지 맥아더는 육사

은 국내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신생 미국이 유럽을 상대하여 세계 문제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을 취했던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권을 보호하고 유럽에 대한 고립을 골자로 하는 먼로주의에 기반한 외교정책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기까지 지켜졌다. 1917년 4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함으로써 미국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19) MacArthur, *Reminiscences*, p. 32.

20) James, *Years of MacArthur*, Vol. 1, p. 169. 맥아더가 별을 달기 전 그의 모친은 남편의 옛 부하이자 참전 미군 총사령관이던 존 퍼싱(John Pershing) 장군에게 아들의 승진을 부탁하는 많은 편지를 보냈다. 어쨌든 그는 37세에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21) 제1차 세계대전 중 그는 아직 계급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미 육군에서 발간한 미국군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맥아더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 저서에서 맥아더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이후의 일들이다. Maurice Matloff, ed. *American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Office of

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에 많은 교수들이 반대에 별다른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다.²²⁾ 1922년 결혼하면서 맥아더는 육사교장에서 다시 필리핀 근무를 지시받았다. 당시 그는 40세가 넘었다.²³⁾ 그의 첫째 부인이 된 브룩스(Louise Brooks)는 이혼한 경험이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1927년 이혼으로 끝이 났다. 그 후 필리핀에서 혼혈 필리핀 여성(Elizabeth 'Isabel' Cooper)과 동거하다 미국까지 데려왔으나 결국 결혼하지 않고 헤어졌다.²⁴⁾

1930년 맥아더는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Army Chief of Staff)에 임명되었다. 1933년 대통령이 후버에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로 바뀐 후에도 1935년까지 그는 계속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육군참모총장 시절인 1931년 그는 제대군인들의 연금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루즈벨트와는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맥아더는 1935년 육군 참모총장을 끝으로 전역을 하였으나 필리핀 식민 정부의 초청을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필리핀으로 가는 배에서 그는 여행 중이던 페어클로드(Jean Faircloth)를 만나 1937년 뉴욕에서 결혼하였다. 이듬해 둘 사이에 아들(Arthur)이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당시 맥아더의 나이는 58세였고 육사교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퇴역 장성이었으며 필리핀 식민정부의 군사고문이었으나 아직 그의 전성기는 아니었다.

퇴역 후 필리핀 정부를 위하여 군사고문의 역할을 하던 맥아더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참전이 임박해지면서 루즈벨트의 명으로 군대에 복귀했다. 맥아더는 극동 미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임박한 일본 군대의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9), p. 410.

22) James, *MacArthur*, Vol. 1, pp. 266-267.

23) 그의 사회적 배경이나 혹은 인간적인 매력 등을 고려할 때 그는 결혼보다는 출세에 더 매달려 있었던 것 같다.

24) 맥아더는 자신의 회고록(*Reminiscences*)에서 필리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필리핀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 워싱턴 당국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오렌지 작전(Operation Orange)과 레인보우 작전(Rainbow)을 개발해 놓고 있었다. 맥아더는 이 작전들을 그대로 수용했다.²⁵⁾

3. 제2차 세계대전과 맥아더

필리핀 미군 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는 필리핀 방어에 전념했다. 일본이 침공할 경우 마닐라가 목표가 될 것으로 예견한 맥아더는 마닐라로 진격하는 길목에 해당되는 바탄 반도와 인근 콜라기도르 섬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²⁶⁾ 맥아더는 바탄에 거대한 요새를 축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일본군이 침공하였을 때 맥아더가 축조한 요새들은 보급로가 차단됨으로 항복하고 말았다.²⁷⁾ 미국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의 전쟁 포로가 적진에 남겨진 전투였다.

미국 군부는 일본이 하와이가 아니라 필리핀을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가 하와이 진주만이 공격을 받자 필리핀에 있던 맥아더 부대는 일본의 다음 공격 목표가 필리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맥아더 참모들은 진주만 기습 소식을 접한 직후 일본이 필리핀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군 기지가 있는 타이완을 공격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참모들의 타이완 공격 주장을 받아들이

25) D. Clayton James, "American and Japanese Strategies in the Pacific War," in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711.

26) 맥아더에 따르면 마닐라는 군사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마닐라 만의 입구는 콜라기도르와 바탄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됨으로, 이들을 우리가 지키는 한 마닐라는 적들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적이 병을 가졌다면 나는 병마개를 가졌다"고 술회하였다. MacArthur, *Reminiscences*, p. 126.

27) Matloff, *American Military History*, pp. 433-435.

지 않고 필리핀에서 일본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있던 B-17 폭격기의 절반 이상과 추격기(pursuit plane)의 대부분을 잃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⁸⁾ 맥아더는 필리핀의 경험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핵심적 전략이 된 새로운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을 구상하게 되었다.

필리핀이 함락되면서 맥아더는 함정을 타고 필리핀을 탈출하여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에 대한 반격을 구상하고 지휘하게 되었다. 맥아더의 모습이 세계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맥아더의 이름을 듣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맥아더는 신문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반드시 돌아 갈 것(I shall return)”을 약속하였다. 신문에 나타난 이런 그의 모습에서 패장의 그늘을 찾기 어려웠다. 진주만 기습 이후 계속하여 일본의 진격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맥아더의 이런 모습은 희망의 불씨와도 같았다. 대통령 루즈벨트는 맥아더에게 무공훈장을 줌으로써 맥아더가 만들어 낸 희망의 분위기를 더욱 높여 주었다.²⁹⁾ 맥아더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³⁰⁾

맥아더는 필리핀 수복을 준비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격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당시 미 군부는 일본을 격퇴하기 위하여 두 가지 공격 루트를 택하였다. 첫째는 태평양 중앙을 가로질러 일본 열도를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서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차례로 점령하며 일본 열도를 공격하는 안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격 작전은 전쟁이 발발

28) Schaller, *MacArthur*, pp. 55-56.

29) *Ibid.*, 63; MacArthur, *Reminiscences*, p. 147.

30) 패퇴한 맥아더에 대한 여론의 환대와 국민적 환호에 대해 아이젠하워는 “여론이 영웅을 자신들의 상상에 따라 만들어냈다(the public has built itself a hero out of its own imagination)”고 당시 기록한 일기에서 평하였다. Robert H. Ferrell, ed., *The Eisenhower Diaries* (New York: W. W. Norton, 1981), p. 51.

하기 전 일본의 침략을 가상한 작전계획(Rainbow 5 and ABC-1)에 의하여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다.³¹⁾

남서태평양에서 일본으로 진격하는 공격 안에 대하여 다시 두 가지 안이 제기되었다. 맥아더는 뉴기니와 필리핀을 통하는 공격 루트를 택하길 원했다.³²⁾ 반면 킹(Admiral Earnest J. King) 제독은 뉴기니를 차선으로 택하면서 마셜군도와 마리아나 그리고 피모사(타이완)를 공격의 축으로 삼기를 원했다. 킹 제독은 필리핀 열도는 비껴가길 원했다. 또한 태평양 중앙선 공격을 맡은 니미츠(Admiral Chester W. Nimitz) 제독도 킹 제독과 함께 타이완과 아모이(Amoy)에 상륙하는 공격 루트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끈질긴 반대와 설득으로 1944년 마셜장군의 협조로 타이완 상륙을 포기하고, 1944년 10월 말 필리핀 상륙을 선택함으로써 맥아더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었다.³³⁾

필리핀 수복 후 맥아더의 공격은 일본 본토 공격에 모아졌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마셜(George Marshall) 장군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는 유럽에서 실시되었던 노르망디식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일본군을 항복시킬 것을 주장했으며 합참본부도 1944년 6월에는 일본 본토 상륙 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해군 제독 서먼(Admiral Forrest Sherman)과의 면담에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일본열도로 연결된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는 봉쇄를 핵심으로 하는 해양작전을 지지하였다.³⁴⁾ 일본 열도 봉쇄작전은 해군에서도 지지하던 계획이었다. 동시에 맥아더는 소련 군대가 만주에 있는 일본 육군을 공격하도록 워싱턴이 소련에 강력히

31) James, "American and Japanese Strategies in the Pacific War," p. 711.

32) Ibid., p. 727.

33) Ibid; Clark Reynolds, "MacArthur as Maritime Strategist,"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105(March-April 1980), pp. 81-82.

34) Forrest Sherman, "Notes on Conferences with CinCSWPA," 3-10 November 1944, p. 11, Sherman papers, Operational Archives, Naval Historical Center; Reynolds, "MacArthur as Maritime Strategist," p. 82에서 재인용.

중용할 것을 요구했다.³⁵⁾

맥아더는 일본군과 정면충돌하게 되는 돌파형의 상륙작전보다는 해군이 주장하던 봉쇄작전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전기 작가인 제임스(D. Clayton James)에 따르면 맥아더는 제2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현대 해전의 원칙들 중 특히 잠재력이 가장 큰 공격전을 펼 수 있는 고속 항공모함을 이용한 작전에 내재된 위험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³⁶⁾ 그러나 홀란드아(Hollandia)와 뉴기니(New Guinea) 그리고 필리핀에서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맥아더는 해양작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바꾸기 시작했다.

전사학자 레이놀즈(Clark G. Reynolds)에 따르면 이와지마(Iwo Jima)와 오키나와에서 해병대의 성공적인 작전이 있은 후 해양작전에 대한 맥아더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해군과 해병대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³⁷⁾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 본토 진격작전(Operation OLYMPIC)을 준비할 때 맥아더는 일본 공격에 해병대와 전술 비행단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항공모함을 사용한 해군의 공군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³⁸⁾ 또한 그의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완수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일본군에 대한 소련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³⁹⁾ 8월 초 소련군이 일본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에 맥아더는 비로소 자신의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매우 고무되었다.⁴⁰⁾

그러나 맥아더는 일본 본토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일 필요는 없었다.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됨으로써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35) Reynolds, “MacArthur as Maritime Strategist,” p. 83.

36) James, *MacArthur*, Vol. 2, p. 359.

37) Reynolds, “MacArthur as Maritime Strategist,” p. 84.

38) Ibid.

39) James, *MacArthur*, Vol. 2, 764-768, p. 770.

40) Ibid.

못하고 행복하고 말았다.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발표가 있는 후 미국 항공모함 미주리호에서 맥아더는 일본항복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태평양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다시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역사학자 제임스(D. Clayton James)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인은 없었으며, 대신 합참(Joint Chiefs)이나 위원회 등의 집단적 의결로 전략을 결정하였다⁴¹⁾고 한다.

4. 일본 점령통치와 맥아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맥아더는 전후 일본의 점령군 최고 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으로 임명되었다. 점령군 사령관은 워싱턴이 결정한 점령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였다. 일본이 항복하기 수년 전에 이미 점령에 관한 기본정책들은 워싱턴의 국무-육군-해군 조정 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와 동 위원회의 극동소위원회(Far East Subcommittee)에서 결정해 놓고 있었다.⁴²⁾ 1945년 9월 일본에 상륙한 맥아더는 워싱턴의 기본적인 점령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 점령정책의 핵심은 일본의 무장해제와 비군사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일본의 점령정책의 최고 집행권자로서 맥아더의 점령 통치에 대한 영향

41) James, "Strategies in the Pacific," p. 731.

42) 흔히 맥아더가 모든 정책을 결정한 것과 같이 인식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된 것은 그의 부관이었거나 그의 주변에 있었던 기자들이 발표한 내용이 마치 맥아더가 처음부터 시작한 정책으로 보도한 탓이었다. 맥아더 자신도 회고록에서 마치 자신이 거의 모든 점령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술회한 탓이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점령정책들은 워싱턴 당국이 이미 전쟁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자료 참조.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Vol. 3, p. 10; MacArthur, *Reminiscences*, p. 282.

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맥아더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는 단순히 정책 집행자 이상이었다. 그는 일본 천왕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는 등 실제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다.⁴³⁾ 일본은 독일과 같이 분할되지도 않았고 소련을 비롯한 다른 연합국의 개입도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그의 점령정책의 집행은 마치 일인지배와 같은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맥아더는 먼저 군국주의 지도자들의 체포와 축출을 단행했다. 전쟁을 주도하였던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처벌도 뒤따랐는데 우선 도쿄 전범재판에서 핵심 인물에 대해 사형을 비롯한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 외 수만 명의 전쟁 관련자들을 직위에서 축출하고 군수산업을 이끌던 재벌기업도 모두 해체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용 무기를 소지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⁴⁴⁾ 일본을 제2의 스위스로 만드는 것이 맥아더의 목표였다.

맥아더가 실시한 일본 개혁정치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1946년 일본 헌법의 제정이었다. 일본은 헌법에서 전쟁을 영구히 부정하고 일본은 무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엄격히 해석하면 방어전쟁 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⁴⁵⁾ 헌법은 일본의 비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에게는 일본의 재침을 방지해 주었으며, 일본에게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고 실리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 정치적 담보제도가 되었다. 또한 미국에게는 일본을 자신의 군사보호국으로 만들으로써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였다. 일본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였다.

그러나 일본 점령 정책 중 맥아더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

43) Ibid., pp. 287-288.

44) Nam G. Kim, *From Enemies to Allie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U.S.-Japan Relations* (San Francisco, 1997), p. 10.

45) Theodore McNelly, "The Renunciation of War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77(1962), pp. 350-378.

었다. 가장 힘든 부분은 경제문제였다. 전후 일본은 각지에 나갔던 일본인들이 식민지의 상실로 본국으로 돌아온 탓에 인구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의 종식과 식민지와 경제관계의 단절로 유발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인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을 지원하였으나 일본인들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본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⁴⁶⁾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식량 원조로 일본이 지탱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도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를 미국이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를 주도하던 재벌이 해체되고 군수 산업과 관련된 중공업이 마비된 상태에서 일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 경제는 심각한 경기 불황의 미궁을 헤매고 있었던 탓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맥아더는 언론에 대한 보도 통제와 통제경제를 실시하며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있었다. 맥아더는 경제재건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자신이 떠난 후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다.⁴⁷⁾

경제적 곤경에 처하고 있는 국가는 비단 일본만이 아니었다. 유럽의 상황도 비슷했다. 점령 통치의 대상이 된 독일 역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제문제를 미국이 그냥 좌시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곤경은 단기적으로는 각 나라의 문제였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경제가 희생하지 않고는 미국의 대외수출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의 경제를 희생시킬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점차 거세지면서 경제적 곤경을 온상으로 한 공산정권

46) Michael Schaller, *Altered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nce The Occup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9-11.

47) Schaller, *Altered States*, pp. 12-14.

의 가능성이 소련의 침략에 의한 공산화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⁴⁸⁾

거기다 미국의 냉전정책이 본격적으로 미국외교의 핵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1946년 젊은 외교관 케난(George Kennan)이 주장한 봉쇄정책이 미국 외교의 근간이 되면서 전후 미국외교는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는데 집중했다.⁴⁹⁾ 터키와 그리스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47년 트루먼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고, 서유럽에 대한 공산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1948년 마셜플랜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미국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다. 1947년 이후 중국의 공산화가 기정사실화 되어가자 그동안 국공합작을 통한 공산화 방지에 노력하였던 마셜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은 중국을 전후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된다면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 1947부터 1948년 사이 미국의 냉전 전략은 유럽에서 독일과 아시아에서 일본의 재건을 골자로 하는 경제 중심의 봉쇄전략으로 구체화되면서 일본 점령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⁵⁰⁾

1947년 가을 워싱턴은 일본의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육군부에서 육군부 차관 드래퍼(William H. Draper)를 파견했다. 9월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드래퍼는 재벌 타파를 핵심으로 하는 맥아더의 일본 경제정책에 반대했다. 육군부 차관이 되기 전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가였고 또한 점령 독일에 대한 경제 자문역할을 하였던 드래퍼는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했다. 계속 일본인들을 먹여 살리거나, 혹은 미국이 철수하고 일본인을 굶어 죽게 하거나, 아니면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⁵¹⁾

48) Ibid.

49) Wesley M. Bagby, *America'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World War 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48.

50) Ibid., pp. 150-168.

51) Schaller, *Altered States*, pp. 16-17.

일본의 경제적 부흥문제는 결국 국무부가 결정할 문제로 대두되었고 국무부는 1948년 3월 케난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케난은 맥아더와 만나 일본의 장래 문제를 의논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케난과의 회합에서 맥아더는 일본의 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점령 당국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문제로 판단하지는 않았다.⁵²⁾

케난의 방문 이후 워싱턴은 점령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일본경제의 재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점령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시작했다. 케난의 보고서는 NSC13/2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체화 되었다.⁵³⁾ 1948년 10월 7일 미국은 일본점령정책의 공식적인 반전(reverse course)을 결정하였다. 워싱턴은 비군사화정책은 포기하고 대신 경제적 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워싱턴은 1949년 초 일본 경제를 책임질 인물로 디트로이트의 은행가 출신 닷지(Joseph Dodge)를 보내 개혁을 추진하였다.

워싱턴의 점령 정책의 변화는 맥아더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했다. 맥아더는 워싱턴의 일본 경제우선 정책에 반대했으나 워싱턴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⁵⁴⁾ 이후 맥아더의 점령 통치자로서의 역할은 워싱턴의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가 이상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1948년 선거에서 트루먼이 재선에 성공하여 트루먼 행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짐으로써 맥아더의 영향력이 발휘될 공간은 그 만큼 줄었다.⁵⁵⁾

1949년부터 실시된 워싱턴의 일본 경제회복 정책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부존자원이 적고 식량조차 수입해야 하는 일본의 입

52) Ibid. 맥아더는 점령 초기 일본인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경제를 자급자족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워싱턴에 “식량이 아니면 총알을 달라(Give me bread or give me bullet)”라고 말했다. MacArthur, Reminiscences, pp. 305-306.

53) Kim, *From Enemies to Allies*, p. 18.

54) LaFeber, *The Clash*, p. 274.

55) Ibid., 17-18. 1948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김남균, “미국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1948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 비교,” 『미국사연구』 22(2005년 11월), pp. 193-222.

장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역사청산과 무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했다. 또한 1949년에는 공산권의 도전이 미국인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했다.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대륙이 공산화됨으로써 세계 공산화가 현실화되는 듯했다. 공산권의 급격한 부상에 직면하자 트루먼 행정부는 새로운 정책안이 필요했다. 1949년 10월에서 12월을 지내면서 워싱턴은 NSC 48/2을 발전시켰다.⁵⁶⁾ 이 정책안은 일본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었다. 전후 일본을 단독으로 비군사화하고 민주화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일본경제의 재건을 기획했으나 역시 실패한 워싱턴은 일본의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 일본을 중심에 놓고 아시아 지역의 비공산권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일본 발전의 기반으로 삼는 방안을 택했다.⁵⁷⁾ 그러나 일본의 전후 복구가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전 한반도에서 터진 한국전쟁은 일본경제의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경제를 회복시킨 것은 워싱턴이나 맥아더가 아니라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었다.

5. 한국전쟁과 맥아더

1950년 여름에 터진 한국전쟁은 세계 역사에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맥아더에게는 일본에서 시들고 있던 자신의 영향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⁵⁸⁾ 1944년과 1948년 대통령 선거를 놓친 맥아더

56) Kim, *From Enemies to Allies*, pp. 18-20.

57) LaFeber, *The Clash*, p. 79.

58)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하여서는 미국 조지아 대학의 스투크(William Stueck) 교수가 좋은 글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스투크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한국전쟁이 확대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s International History," *Diplomatic History* 10, no 4(Fall 1986), pp. 291-

는 1952년 선거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었다.⁵⁹⁾ 한국전쟁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맥아더는 한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비록 750,000명의 병력이 극동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바이칼 호수 동쪽에는 군사 기지나 혹은 거대한 병력을 뒷받침할 산업시설이 없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군수품을 운반할 보급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뿐이기 때문에 소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맥아더는 믿었다.⁶⁰⁾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맥아더는 한국전쟁에 대비한 어떤 전략적 준비도 갖추지 못했다.⁶¹⁾ 한국전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는 전쟁의 실체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워싱턴이 자신을 구속하지 않으면 “한 팔을 뒤로 묶고도”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앨리슨(John Allison)에게 말했다.⁶²⁾ 그러나 전선을 돌아본 맥아더는 적군의 규모가 예상 이상임을 인식하고 특별한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초에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⁶³⁾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계획은 워싱턴 군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뛰어난 설득력으로 군부의 동의를 얻어낸 후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세계 다른 어느 항구보다 심한 곳이다. 상륙작전

309;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Stueck, *The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59) Schaller, *Altered States*, pp. 81-84.

60) Cyrus L. Schulzberger, *A Long Row of Candles: Memoirs and Diaries* (Toronto, Canada: Macmillan, 1969), p. 56; James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 62.

61) Reynolds, “MacArthur as Maritime Strategist,” p. 85.

62) John M. Allison, *Ambassador from the Prairie: or Allison Wonderland* (Boston: Houghton Mifflin, 1973), p. 129.

63) MacArthur, *Reminiscences*, pp. 333-346.

을 실시하기에는 자연 조건이 극히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맥아더는 이것을 오히려 적의 허점을 찌르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지금도 이 점이 인천 상륙작전에 있어서 맥아더의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⁴⁾ 상륙장소로는 자연 조건이 열악하지만 인천은 서울에서 40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지역이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바로 서울로 진격한 후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지역에 있던 적군의 완전 붕괴를 가져 올 수 있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인천 상륙은 전략적 결작품이었다. 인천상륙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천상륙 이후 인천에서 서울까지 진격작전을 포함한 포괄적인 군사작전에 대해서 스톨피(Russel H.S. Stolfi)는 비판적인 글을 최근에 발표했다.⁶⁵⁾ 스톨피에 따르면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인천서 서울 외곽까지 40킬로를 진격하는데 12일이나 걸린 것은 상륙작전의 군사적 극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⁶⁶⁾

비록 부분적인 문제점을 인정한다 해도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효과가 컸다. 그것은 한국전쟁의 지형을 하루아침에 역전시켰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며 부산 일대만 겨우 유지하고 있던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보급로가 끊긴 적군을 양 방향에서 협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한국전쟁은 맥아더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 같아 보였다. 맥아더 지휘 하에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여 올라갔다. 인천상륙작전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한 덕분이었다.

64) Russel H. S. Stolfi, "A Critique of Pure Success: Inchon Revisited, Revised, and Contrasted,"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8(April, 2004), pp. 507.

65) Ibid., p. 506.

66) 적군의 저항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된 이유는 상륙 후 필요 이상의 전황 브리핑과 작전 사령부 내의 비효율적인 작전 지휘가 원인이었다. Ibid., pp. 523-524.

그러나 맥아더는 중국군이 개입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1950년 겨울, 한국전쟁은 중국군의 개입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맥아더의 군사적 승리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비록 북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워싱턴이었지만 38선을 넘어 중국 접경지역으로 진격할 경우 중국의 참전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야전사령관으로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1950년 10월 말 대통령 트루먼이 웨이크 섬까지 와서 맥아더와 만났을 때 조기 승리를 장담한 것은 맥아더의 평가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군 참전 후 맥아더는 중국에 대한 원자탄 사용을 포함한 확전을 주장하다 결국 1951년 4월에 해임되고 말았다.

중국군 참전 이후 맥아더는 어떤 작전을 구사하고자 하였던 것일까? 전사학자 레이놀즈(Clark G. Reynolds)에 따르면 맥아더는 한반도에서 공산 세력과의 대접전을 전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 미군이 중국군과 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⁶⁷⁾ 맥아더는 알류산 열도에서 타이완과 필리핀에 이르는 섬들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중심으로 미국의 태평양 상의 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맥아더는 “중국 본토에서 미군이 전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머리가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⁶⁸⁾ 따라서 맥아더는 한반도로 넘어 오는 중국군을 막기 위하여 압록강 북부 중국 국경지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여 방사선 막을 쳐 한반도를 만주지역과 격리시켜놓는 한편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과 공수작전을 동시에 실시할 생각이었다. 그는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큰 규모의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⁶⁹⁾ 이런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는 타이완의 국민당 군대도 사용할 계획이었다.

맥아더의 이런 구상은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67) Reynolds, “MacArthur as Maritime Strategist,” p. 86.

68) MacArthur, *Reminiscence*, p. 387.

69) *Ibid.*, p. 384.

판단해 보면 반드시 전쟁광의 망상으로 비난받을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워싱턴의 공화당 정치인과의 밀접하게 교감되고 있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축출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트루먼 행정부가 잘못하여 중국 공산화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는 여론이 강했다. 1950년 초 트루먼 행정부를 옹공정권으로 몰아붙인 맥카시즘의 확산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대체물(no substitute for victory)”은 없으며 확전을 주장한 맥아더의 태도는 극히 미국적이었다. 핵무기는 이미 미국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핵무기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고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도 미국에 훨씬 뒤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므로 아시아 대륙 전체를 놓고 대반격 작전을 전개하려던 맥아더의 계획은 무조건 비난 받아야만 하는 엉뚱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맥아더의 주장과는 달리 워싱턴이 제한전(limited war)으로 한국전쟁을 마치게 된 것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위협이나 핵무기 사용 문제보다 유럽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워싱턴의 안보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⁷⁰⁾ 상원 청문회에서 합참의장이던 브래들리(Omah N. Bradley) 장군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워싱턴 당국은 유럽이 아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진행되는 잘못된 전쟁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⁷¹⁾ 그러나 트루먼은 맥아더가 명령 계통을 무시한다는 점을 해임 이유로 삼았고 역사학자들도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⁷²⁾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전군 사령관의 입장을 지지해 주

70) Stephen E. Ambrose, *Rise to Globalism: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1938*, 4th edition(New York: Penguin Books, 1985), p. 129.

71) Bevin Alexander, *Korea: The First War We Lost* (New York: Hippocrene Books, 1986), p. 415.

72) 소위 트루먼-맥아더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Richard H Rovere and Arthur M. Schlesinger, Jr. *The MacArthur Controvers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Noonday Press, 1965).

는 미국의 정치적 전통과 맞지 않는다.⁷³⁾ 따라서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유럽보다 아래에 수준에 있던 아시아 지역에서 맥아더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전쟁이 확대되면 결국 유럽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⁷⁴⁾ 브래들리를 포함한 워싱턴 정책결정자들이 원하던 것은 유럽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신속히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⁷⁵⁾

결국 1951년 4월 유럽파에 밀려 해임된 맥아더는 일시적으로 역사상 보기 드문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나 곧 대중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1952년 공화당 대선에서 맥아더는 태프트(Robert Taft)를 지지하였으나, 필리핀에서 맥아더의 부관이었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선의 영웅이었던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가 민주당 후보 스티븐슨(Adlai Stevenson)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같은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당선으로 군인 출신 맥아더의 정치적 인기는 완전히 쇠락하고 말았다. 그 후 1964년 그가 사망하기까지 맥아더의 이름은 대통령 후보 대열에 다시는 거론되지 않았다. 20세기 미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권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맥아더는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대신 군인의 삶을 지킨 영원한 장군 맥아더로 남은 것이다.

73)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월 31일에 행한 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of 2006)에서 전쟁에 관련된 결정은 워싱턴의 정치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야전군 사령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지적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http://www.whitehouse.gov/stateoftheunion/2006/print/index.html>.

74) Nixon, "Douglas MacArthur and Shigeru Yoshida," p. 99.

75) Stueck, *Rethinking the Korean War*, pp. 133-134.

6. 맺 음 말

맥아더가 출생하여 유년 시절을 보내던 19세기 말은 미국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던 시기였다.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에 성공한 미국은 1880년에 이르러 세계 2위의 제조업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총생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이 아직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었다.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력의 14.7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영국 외에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1870년대는 통일국가를 이룩하며 새로운 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독일이 빠르게 다른 나라들의 발전 속도를 추월하고 있었다.⁷⁶⁾ 세계사의 중심은 아직 유럽이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이후의 유럽은 더 이상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되었던 유럽은 그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대신 미국이 세계사의 새로운 주연으로 등장하였다. 1941년 타임지 발행인 루스(Henry Luce)가 예측한 ‘미국의 세기’가 실현된 것이다.⁷⁷⁾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5년 만에 터진 한국

76)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pp. 198-202. 열강들의 제조업 생산량의 변화를 시대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생략)

	1880년	1900년	1913년	1923년	1938년
영 국	22.9	18.5	13.6	9.9	10.7
미 국	14.7	23.6	32.0	39.0	31.4
독 일	8.5	13.2	14.8	11.6	12.7
프 랑 스	7.8	6.9	6.1	6.0	4.4
러 시 아	7.6	8.8	8.2	5.3	9.0
이탈리아	2.5	2.5	2.4	2.7	2.8

(참조자료 : Ibid., p. 202)

77) Henry Luce, “The American Century,”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전쟁은 미국을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국가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이었고 아직 점령지배가 끝나지도 않은 일본과 독일을 재무장시켜 미국의 영향권에 들으로써 미국의 세기를 완성시켰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을 지배하는 패권국가가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거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연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의 10퍼센트 이상을 국방비로 쏟아 붓기 시작했다.⁷⁸⁾

맥아더는 미국이 획기적으로 해외 영향력을 팽창시키던 시기에 미국의 전쟁을 지휘한 핵심적인 군사 책임자였다. 구체적으로 맥아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일본 점령통치기간에는 일본을 미국의 군사 기지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하여 맥아더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맥아더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친미 정권이 유지 발전되는데 결정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다. 맥아더를 빼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팽창의 역사를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워싱턴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하였고 맥아더는 결정된 정책의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그의 업적은 단순한 워싱턴의 대리인 이상의 것이었다.⁷⁹⁾ 특히 맥아더는 일본 헌법 9조를 통하여 일본사회의 대규모 군비 증강을 근원적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일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⁸⁰⁾ 뿐만 아니라 일본의 비군사화는 일본의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1-29.

78) Lloyd C. Gardner, Walter F. LaFeber, and Thomas J. McCormick, *Creation of the American Empire: U.S. Diplomatic History* (New York: Rand McNally, 1973), p. 467.

79) 맥아더가 지배하였던 일본 이외 아시아 지역에서 후 미군 점령 통치가 분단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Ronald H. Spector, "After Hiroshima: Allied Military Occupations and the Fate of Japan's Empire, 1945-1947,"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9(October, 2005), p. 1136.

경제적 성장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되었다. 일본 헌법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헌법 9조의 장점을 입증해 주는 점이다. 헌법 9조 덕분에 일본은 군사력을 가졌으면서도 법상으로는 비군사화를 표방하는 비무장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맥아더 헌법으로 불리는 현 일본 헌법은 맥아더의 점령 통치의 최대의 걸작품이었다.⁸¹⁾ 이런 점에서 맥아더는 아시아를 점령하여 아시아를 미국화 시킨 미국의 시저였다.

그러나 로마의 시저보다 맥아더의 역할은 더욱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정복자이면서 동시에 해방자였다. 맥아더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시아인과 전쟁을 치룬 아시아의 점령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피압박 아시아인의 해방자이기도 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을 필리핀에서 추방한 해방자였으며, 태평양 전쟁 후 일본점령군 사령관이었으나 동시에 일본을 개혁함으로써 군국주의로부터 일본을 해방시킨 해방자였다. 한국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을 감행한 점령군이었으나 남한에게는 해방자였다. 이런 역할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맥아더를 평가하는 일은 앞으로도 입장에 따라 그 시각적 편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²⁾

(원고투고일 : 2006. 4. 19, 심사완료일 : 2006. 6. 5)

주제어 : 더글러스 맥아더, 미국의 세기, 일본점령통치,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80) LaFeber, *The Clash*, p. 283.

81) James, *Years of MacArthur*, Vol. 2, p. 792.

82) Nixon, "Douglas MacArthur and Shigeru Yoshida," pp. 130-131.

<ABSTRACT>

Douglas MacArthur Revisited :
The American Century and MacArthur

Kim, Nam-gyun

Who was General Douglas MacArthur? How to evaluate him? There are a number of books on General MacArthur. As the number of books show us, MacArthur might be a more controversial figure than any other historical figure in American history—a war hero to a selfish egoist driven by a political ambition to become a president. Depending on their view points, historians have evaluated General MacArthur very different.

Trying to balance the opposing views on General MacArthur,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General MacArthur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20th century in which he lived. The 20th century was considered an 'the American Century' in which America grew as dominant power. General MacArthur was a military product of the American century. When he was born in 1880, the United States was far behind the British in the manufacturing capacity. The United States became the most dominant power in the world, however, when he was released from 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during the Korean War in 1951.

During the time of his a long life from 1880 to 1964. General MacArthur led American forces in many wars. Particularly, he was the war hero of the Second World War. He commanded and won the war in the Southwestern Pacific Theater against the Japanese forces. He became a ruler in Japan

after the Japanese surrendered in 1945. Five years later, he made a brilliant landing in Incheon during the Korean War. The Incheon Landing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military achievement in American history.

Viewing the military records of General MacArthur, it would be very hard to deny his military achievement.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other opinions among historians regarding him. In Korea, especially there is ideological conflict among civic groups about him. It is very hard to find a middle ground to evaluate a military figure because there are always two sides of enemies and allies in a war. General MacArthur was not exceptional. He was treated in two different ways when he made military victories. His allies welcomed him as liberator while his enemies hated him as conqueror. As a result, the debate on him will have no final answer in the short future.

Key Words : Douglas MacArthur, American Century,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Korean War, Incheon Landing

K C I